

# 연변대에 전주문화 담는다

## ▶ 전통문화전당, 연변대 박물관과 협약

한지·한식·공예 등 문화자원  
담아내기 위한 전초 작업 일환  
한문화 상호 협력방안 모색  
서적 발간 등 공동 노력 펼치기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한문화 외교를 위해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연변대학교 박물관이 손을 맞잡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연변대학교 박물관 내에 한지와 한식, 공예 등 전주의 우수 전통문화 자원을 담아내기 위한 전초 작업의 일환으로, 향후 구체적인 성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과 연변대학교 박물관(관장 최홍일)은 지난 26일 오후 5시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한 한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인미에 디자인개발실장 일행이 올 상반기 글로벌 한문화 교류 협력 차 박물관을 초청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이루어졌다. 협약식에는 진철 연변대 부총장을 비롯, 최홍일 연변대 박물관장, 이종립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원장, 김은송 연변대 국제교류협력처 부처장 등 4명이 함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한지문화 관련 학술연구와 전시, 활용 ▲한문화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 ▲박물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문화 관련 서적 발간 ▲전주를 중심으로 한 한문화 확산 등에 공동 노력을 펼쳐 나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과 연변대학교 박물관(관장 최홍일)이 지난 26일 오후 5시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특히 연변대학교 박물관 내에 구축 중인 콘텐츠에 전주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원을 한지, 한식, 공예를 담아내기 위해 전당은 박물관측과 그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고, 본 협약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1949년 4월 길림성에 설립된 연변대학교는 동북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역사·언어는 물론, 특히 예술과 과학분야에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 동북아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국 중점 100대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합대학이다.

아울러 연변대 박물관은 2013년 완공돼 현재

내부 시설과 콘텐츠 구축 중이다. 주요 콘텐츠로는 대학의 역사와 중국 조선민족의 역사 박물관은 물론 백두산 자연환경과 한민족의 역사·문화도 담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전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태수 원장은 "오늘의 협약을 통해 연변대학교 박물관측과 전주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려내기 위한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과 노력들을 펼쳐야겠지만 한지, 한식, 공예 등 전주의 우수한 문화자원들이 박물관에 전시될 경우 연변대 박물관이 전주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10억 중국인들에게 알려내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조선 후기 출판문화와 방각본의 역할

## 완판본문화관 인문학 강좌

지난 26일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 세미나실에서 '조선 후기 출판문화와 방각본의 역할'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가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옥영정 교수와 함께한 이번 강좌는 방각본 일반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의를 검토하고, 방각본의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 방각본의 역할을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완판본(옛 전주(완산))에서 진행된 책과 그

판본은 전라감영에서 발간한 '완영본'과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한 '방각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한글의 유통과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방각본이다.

이날 강의에선 방각본의 정의와 서지적 분석, 시기별 특징과 지역별 특징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국 고인쇄문화의 바탕을 이룸과 동시에 일반 서민들의 교육 및 독서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방각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해은 기자



# '국악, 위대한 전통·우리의 맥'

## ▶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북의 산수 묘사한 곡들로 꾸며  
내달 1~2일 소리문화전당서 무대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전북의 자연과 삶이 이야기 서정적인 국악선율로 여운된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관현악단은 제44회 정기연주회 '위대한 전통·한국의 맥·나라음악(國樂), 바람을 품다'를 내달 1일~2일 오후 7시30분 두 차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나라음악(國樂), 바람을 품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역동의 세월을 살아온 전북도민에 대한 '국악 헌정 시' 같은 연주회다.

초연되는 총 6개의 작품은 전북의 산수를 묘사한 곡들로 봄의 생명력을 섬김의 아름다움에, 역동적인 여름을 채색강의 풍경에 담아낸다. 또 지리산이 품은 서사로 가을을, 덕유산의 겨울로 인고의 시간을 그려낸다.

계성원, 김백찬, 강성오, 강상구, 안태상이 작곡을 맡아 시대와 조화를 이루는 전통예술의 창조적 발전을 모색하며, 창극단과 판소리 아가페라는 삶의 현장과 함께 하는 성음으로 음악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무대의 서곡은 전북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아우르는 '바람을 품다. 예맥의 땅'으로, 전통 예술의 맥이 유구하게 흐르는 땅, 전북의 아름다움을 국악관현악과 판소리

구음에 담아낸다. 이어 생명이 탄생하는 봄의 신비로움을 들려주는 '꽃이 머물다. 섬김강, 이화도화'는 웅장한 산과 거대하지만 묵묵하게 흐르는 강물 앞에서 봄을 알리는 배꽃과 복사꽃의 아름다움이 연상되는 곡이다.

짧음과 역동의 선율 '아카펠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여름일기, 채색강(소적벽)은 부안 출신인 신석정의 시 '채색강 가는 길'에서 발췌하여 악곡을 구성했다.

또한 지리산의 장엄한 역사와 삶의 이야기기를 담은 '가을소리, 흥·지리산 물들다'는 산을 바라보는 격한 감동과 심정의 고동소리를 다양한 리듬의 변화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전한다.

인고의 세월을 지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꿈꾸는 '겨울·눈 내리는 날, 덕유산 살현'은 총 3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곡. 살얼음 낀 냇가에 내리는 하얀 눈이 주는 따뜻함과 포근함, 눈 덮인 산의 진하고 웅장한 풍경을 담아냈다.

마지막 곡 '나라음악(國樂) 예인의 땅·영원한 예향'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움츠려진 몸이 펴지듯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연주한다.

신동원 국악원장은 "이번 정기연주회는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이 땅의 이야기를 국악관현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드리기 위해 모든 예술역량을 응집한 무대"라며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고 전했다.

공연은 무료로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호남권 게임 전시회 개최

내년 2월 광주·전북 번갈아

##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광주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이신후)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과 '호남권 게임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 전시회는 호남지역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전북과 광주 지역에 게임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게임 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게임 임팩터를 설립한 것이 배경이 됐다.

양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내년 2월부터 광주와 전북 지역에서 교대로 게임 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먼저 내년 2월 23~25일에는 VR게임으로 특화된 광주광역시에서, 다음 게임전시회는 기



최근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능성게임으로 특화된 전라북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신후 원장은 "이번 행사가 전북과 광주지역 게임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게임 관련 사업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임관계자들이 모여 게임산업의 미래발전을 꾀하는 게임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신후 원장은 "이번 행사가 전북과 광주지역 게임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게임 관련 사업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제1회 전라북도 아리울어머니 합창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군민에게 믿음 주는 장수군의의회

